

전도사 (사도행전 12:1-19)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응답이다. 세상은 자꾸 어려워져 가고, 말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영적으로 점점 힘들어간다는 뜻이다. 여기에 속으면 안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언약이고 기도와 예배이다. 오늘도 언약 잡고 예배 드리기 바란다. 사람이 진짜 어려움 당하면 예배와 기도 외에는 할게 없어도 된다. 그것은 꼭 어려울 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인간이 항상 할수 있는 것은 예배와 기도 밖에 없다. 그런데 이 예배를 예사로 드리면 안된다. 마음을 잡고, 언약 잡고 예배 드리고 응답 받기 바란다. 응답을 받아야 인생이 해결된다. 문제가 해결 안되면 누구든지 맥을 못 춘다. 그리고 증인 절대 안된다.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이 없는데 무슨 증인이 되는가? 그래서 항상 이슈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을수 있는가가 이슈이다. 더 가면 어떻게 하면 전도가 계속 될 수 있는가? 전도는 누구나 하고 싶다. 그리고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노력하는 인생은 어렵다. 성경은, 그리고 매주 메시지는 이것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다. 지난 주에도 그렇다. 언약계를 따라가라. 그러면 너의 모든 문제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이다. 메시지가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 걸고 언약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인생이 마른 땅 건너듯 건너게 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언약계는 이 문제가 끝날때까지 강 한복판에 서 있었다. 모든 백성이 다 건넌 후에 백성이 보는 앞에서 언약계가 올라왔다. 굉장한 메시지가이다.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한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마음에 담고 언약으로 잡으라는 말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돌 가지고 쌓으라고 했다. 너희도 이렇게 살지만 너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라는 것이다. 나이가 50만 넘어도 아이들의 응답이 자기의 응답이 된다. 60넘으면 말할 것도 없다. 백년동안 살아야 하는데, 60살부터 40년동안 아이들의 응답을 먹으며 사는 것이다. 인간은. 생명 걸고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몇주전에 이야기 했는데, 리브가는 메시지 받고 죽어라고 전달해야 하는데, 내 생각에 한마디도 안 한 것 같다. 에서에게는 너는 먼저 태어났지만 장자권은 하나님이 둘째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하면 에서가 수용하겠는가? 절대 안 할 것이다. 그래도 할때까지 말해야 하는 것이다. 어릴때부터 계속 심어서 결국은 에서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계속 말해서 쓸데없는 짓을 안하도록 해야 하는데, 쓸데 없는 짓을 해서 원수가 된 것이다.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삭이 아버지이다. 아버지가 안수를 할테니 고기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먹고 안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리브가가 들은 것이다. 그래서 급하게 야곱을 꾸며서 보내서 안수받게 하였다. 안수 안 받았으면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안오는가? 이삭이 모르고 에서에게 안수했다면, 장자권이 이미 야곱에게 있는데, 그게 에서에게 옮겨가는가? 여러분들도 확실히 모르겠다는 분도 있는 것 같다. 그게 다 종교이다. 인간이 뭐든, 장자권이, 창세전부터 결정된 것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한다는 것인가? 아버지의 안수 안 받아도 관계 없다. 이삭과 에서가 자기끼리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 없다. 결정났는데. 팔죽으로 산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가? 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상관 없다. 본래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야곱하고 리브가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다. 남편한테도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일때까지 계속 말해야 했다.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끼리 원수가 된 것이다. 많다. 생명 걸고 언약을 전달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씩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는데, 계속 하면 아이들 다 죽는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이들도 이해한다. 그래도 가능하면 우버를 태워서라도 보내라. 말세이다. 정신차려야 한다. 우리는 언약을 받은, 특별히 선택된 교회이다. 시대적인 언약이라고 한두번 이야기 안했다. 교회를 공부해보라. 이런 언약이 있었는가. 무디도 아니고 웨슬레도 아니라고 하면 전부다 아닌 것이다. 정신 딱 차리고 사명 회복하고 예배 확실히 드리고 기도 확실히 드리고 그래야 한다. 물론 불신자들하고도 잘 산다. 내 아이들이 불신자 비슷하게 되어도 잘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돌아오겠지 하고 살수도 있다. 그 때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문제이다. 문제가 있는 부모요 생각이 없는 부모요, 하나님하고 관심이 없는 부모인 것이다. 항상 답을 주는데 답을 안하고 다른 것을 하거나 바로 옆에서 속고 있다. 결단하라.

어떤 사람이 복음 받았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것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얼른 보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이야기 했다. 예수 믿어야 한다. 안들었다. 그래서 또 말했다. 세월이 가는 것이다. 또 말했다. 어느날 결심하고 시골에 찾아가서 앉았다. 송곳을 가지고 와서 손에다 딱 찍었다. 그리고 그것 들고 방문 안으로 들어갔다. 믿음래, 안 믿음래?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한다.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 나도 그렇게 할 자신은 없다. 우리 모친 아직 안 믿는다.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믿어야 되고 언약되어야 되는 것이다. 믿기는 믿는데 언약이 안되었다면 불신자와 같다. 라합도 마찬가지. 기생이라 무시당한다. 그런데 언약 선택했더니 완전 인생 역전되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기도 했다. 이 언약 때문에 핍박 받았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혀만 조금 꼬부리면 살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혀를 꼬부릴수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다. 그래서 거기 못살고 훌러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되면 어찌 되는가? 잘못하면 잡혀가는데, 빨리 도망쳐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도망해서 샌프란시스코 가서 산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중에 이름도 없는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니 대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세운 것이다. 교회사에 획을 그은 교회였다. 우리는 목표가 천국이다. 땅이 아니다. 자꾸만 이놈의 땅 생각 때문에 망한다. 천국에 상급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땅의 상급이 목표가 되는 것이다. 사단이 계속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계속 속는 것이다. 그러면 되겠는가? 시대적인 인물들이다. 이름도 안 나왔다. 몇 사람, 평신도 제자들이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시대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체가 되었다.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은가? 진짜 조용히 생각하고 결단해야 한다. 주여~ 그래서 결단 안된다. 지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고 결단해야 한다. 언약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응답 받는다. 그 것으로 승리하고 증인 되는 것이다.

1. 전도사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중 하나이다. 당시 헤롯왕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은 유대인 아니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야 했다. 다른 민족이라서. 그래서 제자들을 가둬서 죽이고 했는데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가둬놨다. 이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막 기도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믿지도 않지만 기도는 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안 믿는 기도도 응답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는 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응답으로 천사를 보내고 옥문을 열고 베드로가 나왔다. 본문에도 보면 조그만 여자가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 왔다고 하니 아무도 안 믿었다. 미쳤나 했다. 그래도 계속 이야기 하니, 그건 천사라고 하면서 끝까지 안 믿었다. 그래도 괜찮다. 잘 믿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 기도를 계속 해야 한다. 이 헤롯왕은 나중에 보면 벌레에 물려서 죽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시 중요한 전도사였다.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 전도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약속이 있는 피제사이다. 무엇에 대한 약속인가? 원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약속이다. 그래서 출애굽 하는 그날 저녁에 그 언약의 피, 어린양의 피를 바른 그 날에 나오도록 모든 것을 맞췄다. 왜냐면 피를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피에 맞춘 것은 그대로 되었다. 노아는 언약의 사람이었다. 사람과 짐승, 새 다 죽었다. 그런데 노아와 가족은 다 살았다. 사람 뿐 아니라 노아와 함께 있던 짐승도 다 살았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게 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이 홍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줬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이며, 이것을 넘는 방법은 뭔가 다 알려줬다. 이것이 언약 가진자의 특권이고 은혜이다. 우리 그것을 다 받았다. 근본에 대한거 다 받았다. 원인은 사단이고 원죄이다. 그리고 답은 그리스도이다. 그 언약의 피가 답이다. 우리는 자는 뱀의 버리, 그 원인되는 뱀의 머리가 박살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너의 인생의 답이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언약계를 따라갔다. 예를 들어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게 라합이었다. 한 개만 답 나면 된다. 답 난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들어도 지겹다는 생각이 안든다. 세상의 노래나 이론은 다 알고 있으면 계속 들으면 지겹다. 또 그소리 나라고 한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누리는 사람은 들을 때마다 더 힘이 난다. 오히려 계속 더 듣고 싶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들어야 힘이 난다. 다른데에서는 힘이 안 난다. 그게 그리스도이다. 그게 그리스도요 성령님의 역사이다. 이

것을 답으로 준 것이다. 오늘도 이것 때문에 모였다. 이것 잡고 생명 거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의 문이 열리고 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소원잡고 크게 살아야 한다. 언약을 개인적으로 행하고 누리고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이 성경이다. 이 사람들은 전부 시대적 인생 살았다. 우리도 된다. 미국에 시대적 복음전하는 교회가 된다. 그게 시대적인 교회이고 이 일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안 믿어지면 믿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하였다. 베드로도 그 사람중 하나이다. 마태복음 16:16,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주님이 변화되니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라"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 주님이 부활하신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여자 성도이나, 무덤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이다. 가서 확인해야 한다. 우리도 확인해야 한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진짜 길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해결의 길인가? 진리라는 말은 더 큰 의미도 있지만 이것 말고는 진짜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가? 진짜? 하나님하고 한번 붙으라. 기도로. 길이면 진짜 길 한번 보여주시라고. 진짜 길 나타나면 그 사람은 진짜 증인이 되는 것이다. 단어 하나가지고 끝이야. 길, 단어 하나로 끝이야. 다른성경 없어도 괜찮아. 내가 길이야, 그것으로 끝. 모든 것에 대한 길이고, 천국가는 길이고, 응답의 길이다. 인생 꼬이는 사람 많이 있다. 인생의 길이다. 자녀 마음대로 안된다. 자녀 바로 세우는 길이다. 길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야기 할 것이다. 단어 하나로 끝이야. 길.. 증인이다. 해보라. 그리고 답 나고 증인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찾고 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중 하나였다. 사도행전 3장 얇은 뱀이 일어났다. 난리 났다.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시작이었다. 가장 최초로 그리스도 이름 선포한 현장이었다. 지구 생기고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정시 기도자였다. 정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있었다. 참 귀하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 복음전했다.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건질만한 사람이었다. 우리도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 금방 60-70된다. 우리로 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계속 열어주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는 사람이 전도자이다. 하나님 눈에는 그렇다. 세상 사람은 우습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필요 없다. 하나님 눈에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전도자이다. 하나님이 가장 보호하고 축복하고 싶은 사람도 전도자이다. 그래서 시대적인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자이다. 우리는 미국과 남미에 이 콘텐츠를 전하기 위한 안디옥교회이다. 그 콘텐츠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일을 교회에 복음과 비밀을 전달해야 한다. 이런 증거를 가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게 우리 기도제목이다. 우리와 언약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줄 믿는다.

2. 표본적 교회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답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이다. 복음과 전도에 대하여 답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이다. 전도자는 복음으로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이신 제자, 즉 전도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성경적 전도전략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과는 다른 말이다. 복음은 인생의 답이다. 답으로 전달해야 하고, 상대가 이 부분에 답이 날때까지 끝까지 전달해야 한다. 그렇게 할수 있는 내용과 증거가 있어야 사역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선생님이로 끝나거나 사역이 중단된다. 답을 원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답을 말해줄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제자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전도를, 성경적 전도를 끝까지 말할수 있는 그림이 나에게 들어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사람을 제자를 제자화할수 있다. 그 제자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무슨 질문을 해도 끝까지 말할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전도자이다. 인생의 문제는 복음으로 답을 줘야 한다. 전도에 대해서는 성경적 전도전략으로 계속 답을 주고 또 주는 것이다. 이런 전도자를 많이 보유한 교회가 표본적 교회이다. 안디옥 교회에 기념비적 교회가 같은 단어이다. 우리는 미국과 남미에 이런 교회가 되

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나와 있다. 예수님이 질문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나,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이 답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판가름 난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자신에 대해서 한번씩 질문해 볼만 하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자녀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걸로 끝이면 뭐냐는 것이다. 나에게엔 언약이 뭐지? 나는 언약으로 사나? 나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 뭐를 위해 살지? 한번씩 물어봐야 한다.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내 방향을 바로 잡고 나를 바로 잡고 회개도 하고 확인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하튼 전도자로 살아야 한다. 여기에 올인해야 한다. 구원받은 것이 가장 귀하다. 그러면 내 인생을 전도에 드려야 한다. 전체를.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 어떤 형태로든 내 인생을 전도에 드려야 한다. 그러면 자유하게 된다. 힘들 것 같다. 아니다. 자유하게 된다. 그리고 더 응답받는다. 이 때 인생 정복하게 된다.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전도는 기도 응답의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이다. 이것을 맘대로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속는다는 것을 캐치도 잘 못한다. 인간이 나쁜 놈이라 그런게 아니라 영적 문제이다. 사단이 자꾸 사건과 문제를 줘서 속인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한다. 3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요한복음 14:6절 선지자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 외에는 진짜가 없고,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길이라고, 생명이라 하셨기에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모든 문제가 나를 죽이지 못한다고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다. 이 놀라운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는 다고 고백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셨으니 증인되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주세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여자의 후손을 믿습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살내주세요. 이것이 기도이다. 그냥 말씀만 외우는게 기도가 아니다. 열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하나하나 기도하도 울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백개든지 상관없이 한단어로 끝이다. 이 모든 일의 해결이 그리스도인줄 믿습니다. 문제 백개 기도 다 한 것이다. 이 백개의 문제 뒤에 역사하는 뱀의 머기를 박살내러 오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저주에서 해방될 것이다. 주님이 이 저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문제 백개 다 해결할 것이다. 그 다음은 뭐하나? 노는 것이다. 저녁에 한번 더 하는 것이다. 이 기도가 더 힘있다. 오만거 다 기도하면 시간만 많이 가고 늘 내 중심이다. 언약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다 내것만, 그러니까 종교인 것이다. 언약을 왜 찼는가? 믿고 구원받으라고. 누려서 증인되라고. 어떻게 누리나? 기도로 누리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내 문제 백개 기도하면 언약은 어디 갔는가? 내 기도 안에 언약이 녹아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맨날 이야기 하는데, 바로 옆에서 속고 평생 속는 것이다. 오늘부터 싹 바꾸라. 일단 모든 기도 제목 다 던져버려라. 그리고 삼직가지고 다 안되면 길, 하나가지고 하라. 하나님 길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자는 것이다. 기도가 얼마나 힘든데. 기도하기 힘들다. 승리하기 바란다.

인생 참 간단한데, 성경보면 간단한데, 왜 복잡한가? 내가 안해서 그렇다. 그것 뿐이다. 오늘부터 정신차리고 자꾸 까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다 써야 한다. 크게 써 붙여 놔도 된다. 길이라고 써붙여놔라. 바꾸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영적으로라도 일단 승리하고 그 다음이 응답이다. 영적으로 까지 지면 얼마나 억울한가? 응답은 이미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시간표 되어야 오는것인데, 영적인 것은 이미 와 있는 것이다. 예배 확실히 회복하고, 만일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방문 잠고, 딱 앉아서 상 펴놓고, 찬송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본문 창세기 3:15, 마 16:16-19 읽고, 삼직으로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 역사할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메시지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만들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다시 언약으로 잡고 예배드리는 것이 답이다. 축복 있기를 바란다.